

건강백서 17

뇌 (뇌졸중-3)

부분마비 뇌졸중의 후유증이나 피떡이 혈관에 걸려서 일어나는 혈전성의 경우에 지장받는 뇌 부분의 기능에 따라 부분마비가 오게 된다. 한쪽 수족마비, 언어장애, 기억상실 등의 증세들이 온다. 혈전성으로 인한 경우는 그 원인이 되는 피떡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진전이 없어 앓을 먹이기

보는 요혈(要穴)들이다.

합병증 장기간 외병하는데 내 장기 역시 부분마비가 오기 때문에 변비, 소화불량, 마비된 부위의 위축성퇴행증이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음식물의 선택과 마비부위에 대한 적절한 운동을 게을리 않아야 한다. 특히 마비된 부분은 처지지 않게 잡아주는 보조 장치나 특수요법이 필요하다. 중풍변비에 소풍순기환은 특효를 볼수 있는 처방 중의 하나이다. 침구요법은 중풍의 예방과 후유증치료에 탁호를 나타내 평소에도 침구치료를 외면했던 사람조차도 중풍을 당하면 고려해 보는 치료수단이 되어있다. 그러나 발병후 약 15~20일간 치료해서 크게 진전이 없었 경우에는 침구의 매일 집종치료를 삼가해야 한다. 집종치료가 심해 역효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발병초와 응급기를 경과한 후 각종 후유증치료가 장기화될 상황이 되면 마비된 부분의 마목화를 막고 기혈순환을 돕는 정도로 간격을 두면서 시술해야 한다. 보법 사법을 막론하고 장기적 침 치료는 기를 많이 소모한다. 보조요법으로 치료이나 맞사지 요법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오리피, 오리해, 기타 특효가 있다고 알려진 민간약재, 동물 등의 사용은 그 효력의 학술적 입증도 문제라거나 환자가 가족을 현혹하여 물심양면의 고통을 감수되는 경우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의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험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체질과 증상에 따라 해로운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뇌혈관이 회복되어야 후유증이 해소되는 것은 응징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응징형질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야 다소라도 효력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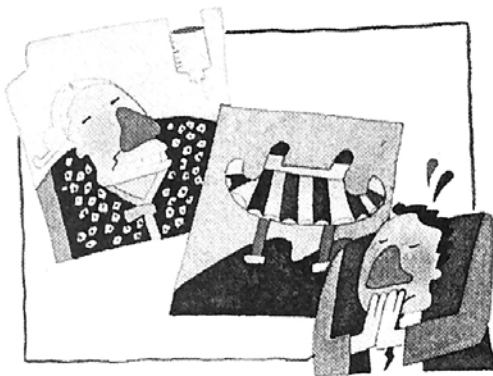
윤운상 (한의학 박사)



청혈제·침구치료 병행 마비해소 음식조절·운동으로 합병증 예방

도 한다. 처음 증세는 별로 심한 것 같지 않은 중풍이 의외로 오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청혈제를 투여하면서 기혈을 회복시키는 약재와 마비를 풀어주는 구풍제를 겸복시켜야 한다. 침구치료 역시 병행하는 편이 배가한다. 보통 침구치료에서 우환좌취(右患左取) 좌환우취(左患右取)니 하여 장애가 보이는 반대측에 시침을 하는데 이는 뇌 손상부위의 반대측 수축에 마비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현대의 학의 이론과 부합된다고 보겠다. 곡지(曲池) 수족삼리(手足三里) 합곡(合谷) 백회(百會) 풍지(風池) 입음(立立) 중안(中靨) 등은 적절하게 응용하면 탁호를

죽음을 이긴 어머니 ③



주부신행담

그림 이준석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잊혀졌던 부처님의 이름을 깨내 주신건 시아버님이었다.

어느날 느닷없이 매미는 종이봉투 속에 먹기좋은 크기의 말랑말랑한 인절미가 들어있었다. 평소엔 떡을 좋아하는 내 생각이 나서 절에서 조금 얻어왔다고 하셨다. 그때 처음 아버님이 절에 다니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니기엔 꽤 먼 거리의 문산에 있는 절이라고 하시면서 다음에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될 때까지 끝내 지켜지지 못하였다.

내가 결혼한 이듬해였다. 건강에 이상 신호를 느낀 아버님은 기어이 입원을 하셔야 했고 몇 번의 대수술을 감당하시면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셨다. 와중에 당신 손자 이름을 미리 만들어 주셨고 작은녀석이 잘라진 발음으로 '하부지'를 소리 낸 즈음 아버님은 이승의 인연을 정리하셨다. 투병중이던때에 아버님은 임버릇처럼 내게 말씀하셨다. 사후에 당신 이름을 절에 맡겨 달라고.

묘하게도 인연의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서 풀리고 있었다. 꽃꽂이를 배우고

어머니 위암소식에 슬픔이 북받쳐 늦은밤 법당찾아 폭포같은 눈물을 쏟았다.

있던 시누이가 감승선생님을 따라 실손 나간 절을 가족에게 소개했고 우린 흔쾌히 아버님 49재를 그 곳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하였다. 사전담사를 다녀온 가족들이 절이 무척 맑고 깨끗하고 아담한 절에 다니는 것 같았다. 다니기엔 꽤 먼 거리의 문산에 있는 절이라고 하시면서 다음에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내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될 때까지 끝내 지켜지지 못하였다.

그즈음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아이 원팔꿈치 관절이 부러지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골절 수술 후 입원치료 기간중에 아버님 49재를 맞게 되었고 불가불 큰아이와 나는 참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속상하고, 죄송하고, 우울한 심정이야 어찌 형언할 수 있을까.

여하튼, 극히 자연스런 계기로 우리 가족과 부처님과의 인연이 맺어지게 되었다. 그 인연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불제자로서의 이름표를 가슴에 붙이고 열심으로 절에 다니는 신앙인이 되었다.

부처님과의 만남 이후 내게 변화가 찾아왔다. 분주한 시간을 틈내어 그분 말씀을 읽고 느껴가며 풍요해진 무형적

민족에게 저으기 놀라고 있었다. 아직은 두이이 치타거리에 절에 오를 기회가 없었지만 터라 아쉬움은 그리움으로 채워놓고 일년에 한번 사월초파일만은 세상이 두쪽나도 상관없다는 일념으로 아이들 챙겨 손잡고, 등에 업고 들뜬 설레임까지 가슴에 포개입고 숨을 몰아 절에 올랐다. 부처님 만나느날 기분이란 초등학교 첫소풍때, 며칠전부터 잠못이루던 기대감과 아주 비슷하였다.

구구절절 좋은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거창한 신도인냥 흥내를 내지만, 솔직히 참된 말씀의 깊은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분만을 그리워하는 철없는 신도임을 짐작 미안해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그런 생활속에서 참으로 아이없이 끔찍한 불행이 찾아들었다. 친정어머니가 암이란 진단과 함께 시한부 삶을 선고 받으셨었다. 급성위암이 간까지 전이되어 수술겨를도 없이 시시각각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어머니의 고통앞에 잔인한 슬픔은 눈물마저 돌려 앉았다.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노환에서 오는 합병증쯤으로 알고계셨기에. 30여년간 슬퍼했던 슬한 눈물의 골절도 넘는 눈물을 마구 떨구고 울치고 다녔다. 그 기막히는 서글픔은 어떤 수식어로도 설득력이 없으리라. 고작 할수있는 일이란 위장한 웃음으로 치료약의 효과를 강조하는것과 뒤돌아 오면서 평평우는 일밖에.

세상이 멈춰지고 시간은 멍한채로 울러다 본 하늘은 강물이었다. 주체 못할 슬픔에 허우적일때 부처님은 홀연히 내게 오셨다. 아나, 절실한 무엇이 그분을 찾아 부른것일까. 무력대고 그분을 향해 달음질했다. 좌우가릴 여유도 잊은채 밤 늦은 시각에 산길을 헤쳐올라 법당문을 열었다. 발을 들이는 동시에 내 눈에서는 폭포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신경희 (수원시 송죽동)

◆ Whosoever exalts himself and despises others, being mean by his pride, let one know him as an outcast.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깔보며, 스스로의 교만 때문에 비굴해진 사람,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아시오.

◆ Not by birth does one become an outcast, not by birth does one become a Brahmana; by deeds one becomes an outcast, by deeds one becomes a Brahmana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태어나면서 바라문인 되는 것도 아니요. 바로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 Know ye this in the way that this example of mine (shows): There was a Kandala of the Sopaka caste, well known as Matanga
나는 다음에 실례를 들겠으니 이것으로 내 말뜻을 알아들으시오. 찬다라족의 아들이며, 개백정 마탕가로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있었소.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38

◆ This Matanga reached the highest fame, such as was very difficult to obtain, and many Khatiyas and Brahmanas went to serve him.
그 마탕가는 얻기 어려운 최상의 명성을 얻었소. 많은 왕족과 바라문들이 그를 섬기려고 모여들었소.

◆ He having mounted the vehicle of the gods, (and entered) the high road (that is) free from dust, having abandoned sensual desires, went to the Brahma world.
그는 신들의 마차에 올라타고 허망한 욕망의 티끌로부터 자유로운 대도(大道)에 들어서 법천의 세계로 가게 되었소.

- * despise (v) 깔보다, 멸망하다
- * sopaka (베일리아)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
- * fame (n) 명성, 명예
- * vehicle (n) 마차
- * deceiver (v) (거짓말 따위로) 속이다
- * mendicant (n) 탁발승, 거지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해외불교문화 다이제스트

돈 환 이노우에 야스지 작

홍경으로 향하는 조행덕은 하나의 슬픔을 안고 있었다. 감주를 점령한 직후 그는 한 여자를 만났다. 공포에 떨고 있는 위글왕족의 왕녀였다. 조행덕은 그녀를 숨겨주고 음식도 가져다 주는 사이 사람이란 감정을 느꼈고 그녀 역시 그랬다.

그녀는 조행덕이 홍경으로 향하기 전날 조행덕에게 '기다릴테니 돌아와 달라'고 했고 조행덕은 '그러겠다'고 했다. 여인은 몸을 허락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기까지는 적극성을 보였던 것이다.

홍경은 큰 도시였다. 조행덕은 그곳에서 원하던대로 서하글자를 배울 수 있었다. 홍경 외곽의 절에서 서하글자를 익히며 서하글자와 한자어의 대조표를 만드는 일도 도

과주성에 절이 많았다. 조행덕은 강론을 듣고 경전번역도 하였다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 조행덕은 주왕례의 협상군은 표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위글여인은 조행덕을 모른체 했고 다음날 자결했다. 조행덕은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했다.

주왕례의 부대는 이동했다. 감주성을 함락시킨 이후 숙주성을 함락시켜 그곳에서 주변의 군소 군대와 싸움을 치르는 세월에 묻혀 있어 했다. 그리고 다시 과주로 옮겼다. 서하에 대해 과주성의 태수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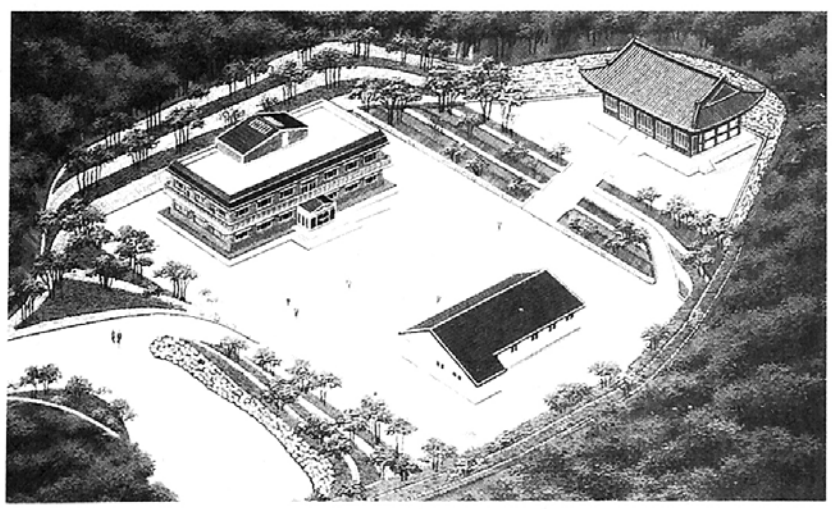
그림 심민섭

에서 <법화경> 강론을 듣기도 하고 경전을 가져다 탐독하기도 했다. 성안은 살만했으나 성 밖은 온통 사막인 그곳에서 조행덕은 실컷 경전을 읽었고 불전의 번역일도 하게됐다. 그는 서하어로 경전을 번역하길 희망하는 조태수의 의견을 정부에 알리고 홍경에서 함께 대조표를 만들었던 학자 여섯명을 차출해 오기가 지 했던 것이다.

학자를 데리러 홍경을 다녀오며 조행덕은 울지광이란 젊은 대상과 인연을 맺었다. 그 대상의 틀에 끼어 홍경을 다녀 왔기 때문이었는데 울지광은 무척 자만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계산이 빠른 장사꾼이었다. 그가 홍경을 다녀와 경전번역 작업을 하는사이 주왕례의 부대는 다시 소규모의 전투에 동원 되곤 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다보사 다보수련원 개원 안내

◆ 多寶修練院 준공법회 및 고 장경호 거사 흥상 제막식 ◆



귀의상보하옵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청정수련도량 多寶寺 多寶修練院의 건립공사를 마치고 준공법회 및 고 장경호거사 흥상 제막식을 아래와 같이 병행합니다. 무부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서 돈 각

일시: 불기 2540년 7월 20일(토) 오전11시
장소: 다보사 다보수련원

■ 당일 아침 7시 정각에 대한불교진흥원 다보빌딩(불교방송) 앞에서 관광버스가 출발합니다. 동참하실 불지는 7월 15일까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02-719-1855)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다보수련원 개원 기념 '96 여름수련회

다보수련원의 개원을 기념하여 모든 불자들이 스스로 청정해지겠다는 서원을 통해 지계와 보시의 실천지침을 생활화함으로써 새로운 신생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밝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전개되고 있는 "청정운동-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주제로 다음과 같이 '96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구분	기간	모집인원	신청마감	대상	동참금
지도자수련회	8. 5-8. 7	70명	7. 25 (목)	신행단체지도자	본원부담
1차 수련회	8. 12-8. 14	70명	8. 2 (금)	성인 누구나	오만원
2차 수련회	8. 19-8. 21	70명	8. 9 (금)	성인 누구나	오만원

- ◆ 초빙강사
이기열 박사(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한 나의 재연"
권기종 박사(동국대 교수) "대승 불교의 요체"
김정민 선생(소설 '탄' 작가) "부처님 당시 수행법의 실제"
- ◆ 준비물
1. 필기구 2. 세면도구 3. 운동복 4. 동참금
- ◆ 참가신청
서울 대한불교진흥원 02-719-1855, 과산 다보수련원 0445-33-7789

다보수련원 이용안내
불교신행단체의 이용뿐만아니라 불자가정과 일반인에게도 항시 열려 있습니다. 이용 15일 전까지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수는 30일전)